

#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캠프' 만든다

### 창조사업 선정 3억5000만원 지원... 체험시설 확충 기대

완도군은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캠프 만들기'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3년 동안 3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창조지역사업은 새정부의 '창조경제' 이념을 지역사업에 접목시킨 신규사업으로 자연·환경·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완도군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돼 매년 35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청산도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캠프 만들기'사업을 신청해 정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부족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7억여원을 투입해 폐교를 슬로푸드 체험관, 숙박시설, 세미나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지난해 3월 문을 열

었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지난 4월 열린 청산도 '슬로우걸기 축제' 기간 동안 4000여명이 이용해 4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현중 완도군 관광정책과장은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로 느린섬 여행학교의 부족한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청산도의 문화와 자원을 발굴해 청산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전경

# 무안 운남~망운 9.6km 4차선 완공... 내달 개통

2차로로 도로가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무안 '운남~망운' 간 국도 77호선이 4차선 도로로 새롭게 태어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6일 무안군 운남면 연리에서 망운면 목서리에 이르는 국도 77호선 9.6km 구간을 4차선으로 신축 완공해 오는 7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총 공사비 692억원을 들인 이 도로 구간에는 교차로 3곳과 다리 6곳이 설치됐다.

국도 77호선 '운남~망운' 4차선 완공으로 신안 압해 지역에서 무안을 거쳐 무안공항이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접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올해 말 '압해~운남' 구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무안~신안 간 국도 77호선이 4차로로 연결돼 인근지역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해남읍 장터축제

추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장터축제'가 26일 해남읍 해남읍 5일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장터축제는 8월을 제외하고 9월까지 5일장이 서는 1일과 6일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해남군 제공)

# 전남도 풍수해 보험가입 3연속 1위 주택·온실 등 5만4109가구 가입

전남도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에선 주택 5만3865가구, 온실 244가구 등 총 5만4109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풍수해보험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86%를 보조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799가구에 6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주택(15평 기준)이 전파됐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난지원금 1400만원이 지급된다.

씨의 경우 보험료 3만6000원을 납부하고 6300만원을 수령했으며, 나주시 이모씨는 보험료 6500원을 납부하고 17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았다.

전남의 보험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도와 시·군에서 보험 가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후원단체 결연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서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만 6820가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섬과 섬 18km 징검다리 연결 '병풍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신안군 증도면에 소재하는 섬인 병풍도(屏風島)에 관한 해양문화유산 조사 성과를 최근 발표했다.

'병풍도' 보고서는 이 섬에 대해 역사·유적, 전통선박, 생업활동, 사회생활, 생애사, 민속문화, 전통민가 편으로 나누어 조사 성과를 수록했다.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주목받는 천일염 생산업전과 옛 노두(징검다리·사진)에 관한 조사가 중점을 두었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나아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삼국시대 유적 2개소, 고려시대 유적 1개소, 조선시대 유적 1개소 등을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병풍도는 병풍도·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의 4개 섬으로 이루어지며, 이곳에는 현재 180호 정도가 산다. 갯벌과 천일염이 외에도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18km에 달하는 노두가 유명하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중부권

# 전남도, 한의약 천연물 신약 개발 탄력

### 장흥에 삼익 제약 의약연구소 유치 개소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은 도내 비교우 약용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 삼익 제약(주) 천연물 의약연구소를 장흥에 유치,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삼익 제약 천연물 의약연구소 유치는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지난 2011년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약제약 약효표준화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의약산업 장기 발전에 따른 사업수행과 연구 개발을 추진해 이뤄진 성과다.

특히 한약제약 약효표준화사업에 따른 한약의 약효성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

고 나고야 의정서를 계기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연구소 유치로 도내 비교우 약용자원 활용과 의약품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전남의 한의약 산업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익 제약(주)은 어린이 허약체질 개선제 '키디', 종합감기약 '마파람' 등 다수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등 연매출 400억원을 상회하는 중견 제약회사다.



조정희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장은 "전남의 한의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강진소방서 도암 119구급대 발대식

강진소방서(서장 차덕운) 도암 119 구급대가 26일 도암소방서 회의실에서 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도암소방서서는 강진군 서부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게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 강진 '청자 DB 구축사업' 담양 '천년의 소리...' 내년 신규사업 잇단 국비 확보

강진군과 담양군이 내년 신규사업과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잇따라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강진군은 26일 "청자 DB 구축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연간 5억원씩 모두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담양군 역시 "2014 창조지역사업"에 담양의 '천년의 소리, 대피리교' 등 각종 대외경과와 공모사업 분야에서 연일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번 국비 확보로 대나무 악기오케스트라 구성, 대나무악기 합주단 동아리팀 운영,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등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악기 연주에 관한 특성화 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관한 2014년 창조지역사업에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3년 동안 연간 5억원씩 모두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담양군 역시 "2014 창조지역사업"에 담양의 '천년의 소리, 대피리교' 등 각종 대외경과와 공모사업 분야에서 연일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번 국비 확보로 대나무 악기오케스트라 구성, 대나무악기 합주단 동아리팀 운영,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등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악기 연주에 관한 특성화 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담양=정재근기자 jrg@

#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 성장 동력 바이오식품산단 조성

장흥군

이명훈 장흥군수는 26일 "민선 5기 들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역 곳곳마다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전남의 중남부권 거점도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군수는 장흥의 미래를 책임질 장흥바이오식품산단지 조성 마무리, 장흥농공단지 및 장평농공단지 확대 조성, 로스타운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5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문화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유망 축제로 선정된 정남진 장흥물축제 성공,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전국 최초 주말관광 토요시장, 국민휴양지 편백숲 우드랜드 치유숲 조성, 장흥~계주 간 쾌속선 취항 등을 통해 '건강휴양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최고의 소득원이면서 대표 특산물인 장흥한우와 장흥표고, 진한



정남진 물축제 대표축제

통합의료센터 예산 관건

경 무산급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역 특산물 가공 및 판매의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통해 43년 만에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은 물론 가장 선호하는 전남지역 귀농지 1위, 2011년 '장흥군 사회조사' 결과 군민 83.6%가 살기 좋은 곳과 향후 95.8%가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곳

으로 인식하게 됐다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 다산목민대상 수상,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전국 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 재정조기집행 우수 등 정부 및 각종 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통합의료센터 건립,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또 조성됐거나 될 예정인 농공 및 산업단지에도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

국도 23호선 직선화 및 4차로 확포장, 유치~이양 간 지방도 4차로 마무리, 장흥교~장흥대교 간 국도 2호선 4차로 확장, 남포~장재도 간 지방도확포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마련, 3년 앞으로 다가온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개최도 부담이다.

이 군수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군민들도 살맛나는 희망장흥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흥=김철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화순, 둘째아 한방점약 지원 호응

화순군은 26일 "화순한민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한방점약 지원사업이 산모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게 점약을 지원한 숫자는 75명인데 올해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6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는 130명 이상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화순군과 화순한민사회의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출산장려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여성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산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